

延禧 - 1924. 05. 20

科學과哲學

李庚烈

나는 이問題로 科學과哲學의關係를 畧述하라는것뿐이다. 哲學의 科學的可能性갓흔것은 내가 여기서새삼스럽게 高唱할必要도 업는것이라. 이는近代科學界에서 누구나 是認하는事實인싸답이다. 或 哲學의 科學的可能性을 疑心하는이가 잇슬것갓흐면 나의 이짧은글속에서도 그可能性을 녀々히 볼줄로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目標삼고 이글을 쓰는것은안이다. 먼저말한대로 科學과哲學의關係를 적어보라는것뿐이다. 다만 내말은 이글속에서라도 哲學의科學的可能性을 차저볼수잇스리라는말이다.

나는 이問題를 아래와갓흔順序로 쓰라고생각한다. 먼저 科學과哲學의 定義를 말하고 그다음에 그定義의意義內容을 說明함으로 그互相關係를 말하라고한다. 이는 定義의意義를 밝히고 內容을 차차내는가운데 엇던 學이던지 그目的또는範圍 方法또는態度를 엇볼수잇는싸답이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或「科學의哲學上價値」라던지 或「哲學의地位」라던지 하는題目을 쓸년지말년지하다.안쓴다고하더라도 먼저記述한것으로써 그歸結을 짐작할수잇슬것이다.

먼저 科學과哲學의定義를 적어보자 學者에싸라서 各々 그가지는定義가 달을것이나 여기적는것은 여러定義들가운데 내생각에 適合하다고 짐작되는것을 적을뿐이다.

科學의定義-「自然現象과잇그互相關係에對한 秩序的智識이科學이다.」(Science is an ordered knowledge of natural phenomena and of the relations between them)

哲學의定義-「事物의根本的原理의學이다.」(Philosophy is a science of fundamental principles of things)

事物이란概念을 다시解釋해서 定義하자면 哲學은 實在及智識의 根本的原理의學이다.

우에定義로 보아서 科學의研究對象은 自然現象과그關係全部인것을 알겠다. 그런데 여기서所謂自然現象이라고한것은 物質現象과 精神現象을 總稱한것이다. 여기서 말한自然은 決코 物質界만가지고하는말이안이다. 그러기에 科學에는 物質科學이잇는 同時에 精神科學이잇는것이다. 仔細히說明하자면 物體의法則 生物界의生活法則을 研究함과同時에 吾人精神生活의現象을 攻究하는 等事가 다科學이하는일이다. 그러기때문에 科學을 다시크게 三分類해서 物體科學 生物科學 心理科學으로말한다. 物質現象만 專攻해서 그現象間에 運行되는 關係法則을 探索하는것이 物體科學이니 物理學, 化學, 地理學, 天文學들이 여기에 屬하는것이다. 그리고 生物界現象및生活法則과및 그物質的屬性을研究하는것이 生物科學이니 植物學, 動物學 生理學과갓흔것들이다. 그리고 心理科學이란것은 人間의精神生活에 存在한法則을 探究하는것이니 心理學 論理學과 갓흔것이 이것을 闡明하라는것이다. 이와갓치 科學의對象은 物質現象뿐만아니라 精神現象까지 包含한것이다. 여기한가지 더보태여 말할것은 以上여러 現象의어느것에도 屬하지안코 다만 그諸現象과 그關係가이에 存在한 原則原理를차자내는데 基礎가 되는科學이 잇스니 이가 基本科學이란 것으로 數學과論理學이 그것이다.

이제 哲學의定義를 按 컨대 事物의根本的原理의學이라고.여기서 哲學의對象은 事物이란것을 알겠다. 그런데 事物이란것은 宇宙間의 總事物을 일음이니 前述한대로 事物이란 實在及智識의意義를 包含한것이다. 그러고보면 事物이란것은 엇가말한科學의對象인自然과 달지안은것이다. 다시말하자면實在及智識이란것도 物體 生物現象 精神生活인것은 說明할것도업다는말이다. 物體 生物現象 精神生活이다.그거리게 或은 哲學을 自然哲學 人生哲學 智識哲學으로 三分類하기도하는것이다. 엇더던지 哲學의研究對象도 宇宙의全物界와 心界를 가진點에서 科學의對象과 다른것이업다. 이것은 哲學의三分類인 自然哲學 人生哲學 智識哲學의攻究對象을 살펴보아도알것이다. 그러타고 내가 여기서 科學과哲學에 差異點이 업다는것은안이다. 그差異는 決코 對象에 잇지안코 그範圍에 잇는것이다. 科學은 部分的의임에對하여 哲學은 一般的이다. 여

괴서 一般的이란말은 無限定한것을 意味하는것이안임은注意할것이다. 다시 科學은 分業的이어서特殊의原理(哲學에比하야)를 論함에反하야 哲學은 同業的이어서 普遍의原理를論한다. 그다음에科學과哲學의크게 區別되는點은 科學은 事物의法則을 先定하나 哲學은 그法則을論究하며 쏘는事物이 法則的인지안인지 그根底를 論究하는것이다. 그러기에 科學은 만흔假設을 先定하고그假設上에서서 그研究를 進行하나 哲學은 假設그것을 攻究하는것임으로 假設의先定을 가지지안는다 여기서 우리는 哲學이 모든科學의根據를 살피어모든科學을 統一하라는것을 녀々히 엿볼수가있다. 科學의 分業的임은 必然之勢이다. 만흔 사람은 分業的임과同時에 同業的이어서 各個科學의綜合으로科學全體의原理를 엿어보라는것도 免치못할要求이다. 科學全體의學이란무얼까? 科學哲學이다. 이런 意味에잇서서도 哲學은 「科學의科學」(Science of Science)이다 수도는 「一般의科學」(Science of the Whole)이라하는말을할수가있다. 以上論述한것을 簡單히 말하자면 科學이나哲學은 그研究對象곳攻究事實이 그量的方面곳範圍에잇서서는 差異가잇스나 그質的方面곳對象그것에 잇서서는 同一한것이 明白하다.

이만치 그對象에對하야 말하고 이제는 다시科學과哲學의定義를 썬돌쳐보아 科學과哲學의本質을차져보기로하자. 科學과哲學의對象을 前述했스니까이번에는 定義를 줄여서말하자면 科學은 秩序的智識이고 哲學은 根本的原理의智識이라고하겠다. 이제 이두定義를 싸져봄으로 그本質을 밝히고 그러케함으로 科學과哲學의關係를 알아보기로하겠다.

이제 科學은秩序的智識이라했다. 이秩序的智識이란뜻은 特殊의研究와 全般의研究를 不問하고엇던條件에符合된智識團體를 일음이다. 그러면 科學의秩序的이란뜻에는 엿던條件이 잇는가. 여기서 우리는三條件을 말하겠다. 科學概括的 方法的 合理的이란것이 그條件이다. 이세條件을 갖촌後에야 비로소秩序的이란 科學의本質을 가지게된다. 科學의科學됨은 實로 이세條件을 具備해야될것이다. 이세條件을 簡略히나마說明해야겠다. 「一」 概略的이란곳個々孤立한事實을 取扱하는것에 썬치지안코 그事實의性質과잇互相間關係를 보아서 同種의事實은 一圈內에 統括하야 그共通點을 찾는것이다. 科學만흔 特殊事實을 그所屬할곳에 붓치는곳分類할수잇는것이라야 科學的智識이되는것이니 그래야만秩序가잇게됨이

다. 그理由는 個々孤立한事實만으로는 法則이나原理를 找지못하는까닭이다. 法則이나原理라는것은 概括되는데서야 找게된다. 그런데 自然現象間에는 連絡이있다. 이連絡을取하여 그發見된共通點에依하여 概括한後에야 秩序있는智識이되는것이다. 常識과科學的智識의區別이 여기서 나타난다. 常識은 片々의智識으로 만흔連絡되지못한다. 矛盾이잇스나 科學的智識은 概括된 것으로 그같은 矛盾을 容認치안는것이다. 「二」方法的이란것은 漠然錯雜하지안코 規則있게곳一定한經路를 밟아整然하게取得된智識을말함이다. 다시말하자면 엇던一定한方法에사라 研究하며 그結果를 一系의組織으로일우는것이다. 래드(Ladd)의定義대로 「經驗의體系를作한智識이科學」이다. 한말도 여기서말하는 方法을經하여 取得한智識을 뜻함일것이다. 各個科學은 各々그種類를사라 그方法이다르나 一般으로 論하면 觀察, 記述, 說明, 分類, 實證等이그重要한方法이다. 그런中에도 實證이 가장重要한것이다. 實證에는 實驗的實證 數學的實證 論理學上實證이잇는것을 注意해야된다. 그럼으로 우리가알것은 實證은 決코實驗으로만되는것이 안이고 數學上論理學上原則에符合되는興否로도하는것을 깨달을것이다. 「三」合理的이란것은 空然한想像으로推測하는것만이안이고칸트(Kant)의科學定義의뜻을말함이니 곳 「原理에依하여排列된 認識의全體即體系는科學으로써 必然性確實性을 가지는것을말함이다. 以上한것을 統括해서말하면 科學이秩序的智識이란것은곳 이런 概括的, 方法的, 合理的이란세條件을 그內容으로 가진것이다. 여기에 科學의本質이 있다. 더詳述하고싶으나 紙面上關係로 이러케簡畧하게만쓰겠다.

이제哲學은根本的原理의智識이란 定義를 쪼개어봄으로 哲學의本質을알아보기로하자. 그러케해봄으로 科學과의關係를 더욱밝혀보자. 이제이根本的이란뜻을 分析해보면 科學의秩序的이란條件을 具有하고도 더욱그根底에 부드친것을 본다. 여기에 哲學의價値와地位를 차질수가있다. 根本的이란것에도 三條件을 들겠니 곳 普遍的, 究竟的, 統一的(統一的)이그것이다. 이세條件의意義를 쪼說明해야되겠다. 「一」普遍的原理라는것은 一局部에만안이라 一切現象에通하는原理를 말함이다. 科學的智識이 個々의孤立된智識이안이고 概括된智識이라는것은 前述했다. 그런데 여기서 哲學의普遍的이란것은 말하자면 더큰概括의意味를 가졌

다. 곧科學은 엇던種類的現象에限한概括이나 哲學의普遍的이란要求는 世界全體의現象에亘한原理이다. 그럼으로哲學은 그普遍的原理를 찾기爲하여 더욱큰概括을 要 한다. 「二」究竟的原理라는것은 事實의奧底에 存한原理이다. 科學은 事實을研究하여 法則을發見하고 그法則으로 그事實을 다시說明함에不過하다. 그러나 哲學은 그法則을 研究한다. 이곳究竟의-根本의-의原理의研究이다. 쇼펜하우어(Schopenhauer)의말대로 「모든科學의依存한根底는 不可思議한것이다. 이것을說明하라는것이形而上學이다」고한뜻으로 哲學의이究竟의이란속 뜻을 엇볼수있다. 쏘위버-백(Uberweg)이 哲學을定義하여 말하기를 「原理의學」(Science of Principles)이라한것도 이런뜻을 두고한말일것이다. 그런대 여기서特히 注意를要하는바는 이究竟의原理의探究는 決코 空想的으로하는것이안이다. 그取하는方法은 어대까지던지 方法的이다. 前述한科學의方法的이란데서 特히實証을가지고말했었다. 거기서 나는 實驗的實證數學的實證論理學的實証을 말했었다. 그런대 이제 哲學도 方法的으로으로研究한다고했스니 여기도 實証이 可能해야될것이다. 여기도 實証이可能하다. 곧 數學的實証과 論理學的實証이잇는것이다. 다만 哲學에서는 實驗的實証이 할수업는것이다. 그러타고 哲學이 方法的이안이라고는할수업다. 實驗은 科學에서도 施키不能한것이만타. 곧例를들자면 心理學에서도 그內部變化에 니르러서는 實驗을 不可施한다. 即原體라던지 意志라던지하는것은 實驗치못하는것이다. 쏘數學도 實驗하지못할것이잇스니 例컨대더 無窮大(8)或은 2와갓흔 値는決코實驗못하는것이다. 그러라고 心理學이나 數學이 科學이안인바안이다. 그러면 哲學이 數學的이나論理學的實証을 다하고오직實驗的實証을못한다고 學的可能性이업다고못할것은明白하지안은가. 그러타고 나는決코實驗의 價値를 無視하는것은안이다. 實驗은 精確한智識을 주는것이나 實驗만이 智識을주는唯一의方法이안이란말이다. 우리는 數學的이나 論理學的原則에準하여 智識을取得할수잇는것이다. 그럼으로 哲學의 究竟的이란것은 決코空想的이안이고 어디까지던지 方法的임을잘理解할수가있다. 「三」統一的又是綜合的原理는 哲學이 攻究하는中 그가장顯著한者이다. 이것이 主辛되는原理이다. 그統一的이란意義는 모든特殊事實의原理를 一體系및헤 綜合하는것이다. 이럼으로 스펜서-(Spencer)는 哲學을定義하여 「가장 完全

히統一된智識」이라고했다. 그런대이제 體系및해든다는말은곳 合理的 共通性을차졌다는意味이다. 우리는 上述한科學의合理的이란 條件과 지금말하는 哲學의統一的이란條件이 여기서 서로對照됨을보지안는가.

이와갓치 哲學의根本的이란것이 普遍的 究竟的統一的이란三條件을 가진것이 科學의秩序的이란것이 概括的, 方法的, 合理的이란三條件을 包括하고도지나가는것을보겠다. 여기서 우리는 哲學의目的또는方法이 科學의그것을 包擁하는것을 知할수가있다. 科學의本質은 科學의그것을 具有한以上인것을 짐작하겠다. 이러하매 우리는 哲學의 科學的可能性을 疑心함은 哲學의本質이엇던것이며 科學의本質이엇던것을 知지못하는것을表示함에지나지못하는 어리석은일인줄을 알것이다. 그研究의對象으로보던지 그研究의目的으로 또는 그方法으로보던지 科學과哲學은 攄리와넙사귀의關係만치 密接한것이다. 科學은한種類的(部分的인)事實에 對한 秩序的智識임에 對하여 哲學은 事物全體에對한 秩序的智識이다. 이곳根本的이란條件을붓치는所以이다. 또다시말하자면 科學의結果를 綜合整理하는것이哲學이다. 따라서哲學은 科學의要件들을 具備하고 그리고 한거름 더드러가서 그核心을 밝히려는것이다. 한事例를들자. 우리가 自然科學이라고하지만은 이는各々分科된個々自然科學-物理 生物學-을 合稱한데不過하고 實로自然科學이란一科가잇는것은안이다. 이에 그個々自然科學의結果를 綜合研究하는根本的原理의學이잇스니 이곳自然哲學이다. 勿論自然科學의結果를 꼭自然哲學만이맞아 研究한다는말은안이다. 自然科學의結果는 自然哲學, 形而上學, 認識論들과갓치여러 哲學分科에서攻究한다. 이와갓치 哲學은一般의學이다. 나는또다시 피히테(Fichte)의哲學定義-「哲學은科學의科學이다」-가 생각이난다. 우리 哲學先生님本傳士는 哲學을原學이라고곳쳐스면도켓다고하셧다. 참말原學이란二字로 넉々히 우에말한모든것을續釋할수가있다.(原學이라하는理由는 李先生님이 雜誌「新生命」第二號인가三號인가에 寄稿해서發表한 것이잇스니 그를 參考함이도흐것이다)

여기까지 나는 哲學과科學의關係를 粗畧하게나마論述했다. 이밧게도 여러問題를 쓰집어내여 더說明할수가있다 그러나 나는 지금여기서 그런餘裕를가지지못했다. 그러나한가지더攻究하고자하는點이있다 그것은 「進步的」이란말이다. 사람들이 흔히科學은進步하는것으로아나 哲學

은停滯한양으로말한다. 科學哲學에는 進歩가업고 늘前것을되푸리하는것으로안다. 그러나 아래케생각하는것은 進歩라는 意義를 깨닫지못한것이며 科學의進歩라는意義까지모르고하는말이다. 이제우리는 科學의進歩니哲學의進歩니하는뜻이 어대잇는지를캐여보자. 科學의法則自體, 哲學의原理自體라는것은 進歩가업다. 進歩하는것이안이다. 科學 眞 이란것은絶對의것이다. 科學 따라서 眞은變함이업다. 그럼으로 眞에는進歩라는것이업다. 그런대사람이차저가짓다는眞은 絶對의것이안이다. 眞그것은 絶對의것으로不變하는것이지만은人間이 알았다는그眞은 絶對의것이안이여서 變 하는것이다. 그런까닭에 우리는 進歩라는것이 眞에잇는것이안이고 認識主觀에달닌것을 理解한다. 科學眞이進歩하는것이안이고 眞을알아보는사람의智力이進歩하는것일다.여기서 우리는 進歩라는뜻이 어대가잇는것을 알엇다. 그러면 이제科學의進歩라는것은 吾人간의 智力發達理解力의程度가올나감을 뜻한것이다. 吾人이探索했다는眞-原理 法則은相對的이다. 다시말하겠다. 科學의 進歩는 吾人의智力發達에 依存한것이지 決코 科學의法則自體나 原理自體가 進歩하기때문이안이다 그런대 吾人이建設하는哲學은 智의 產物이다. 科學가말한대로 智力은發展한다. 이에엇지 哲學에進歩가업겠느냐. 더구나 科學이進歩한다고하면 科學의結果를 綜合研究하는哲學에 進歩가업다는것은 非論理的이다. 이에 哲學이 進歩하는것은 明白하여졌다. 여기서나는 哲學의進歩가보기어렵은理由를 말하겠다 科學은特殊的으로서 直接事實을 取扱하는것이며 그進歩의자취가顯著하게 迅速하게 드러나지만은 哲學은 一般的이고抽象的이고根本的이기때문에 그進歩가 遲々하여看取하기어렵은까닭에 그進歩의자취를 얻는보기가어려운것이다. 實로哲學이根本的의學이라고하면 그進歩가 더될것은免치못할事實이다. 그러타고哲學을固定된學이라고함은謬見일것이다. 더구나 哲學史를 讀은이는 그進歩의가자취를 잘차글수가잇는것이다.

이에 나는 이짧은글을 寫매즈라한다. 한마디로科學과哲學의關係를말하고그만두자. 科學과哲學의關係는 交互關係(Reciprocal Influence)를가짓다. 科學은 部分的으로 事物을 攻究하여 哲學建設의材料를供給한다. 哲學은 그材料로 智識의큰宮殿을 짓는다. 眞理의女王의서는 이宮殿에 居시단다. 아니그러케말하는것보다 우리人間이 眞理란女王을차즈러

드러온네가 더 科學의門을열고드러온 이哲學의宮殿이란다하는편이 學者스럽은말이겟다.

이글을 쓰기는 昨年봄에 李先生님이 내게준練習問題의解答으로 쓰었던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今年一月에 朝鮮學生會主崔學術講演會에서 말했던것이다. 그것을 이번에 우리 「延禧」編輯員의付托으로여기다 실게했다. 맞맞다는 핑계로 論理에 着心치안코 막쓴것을 讀者여러분 께 말해둡니다.

一九二四年三月十日 延禧園에서